<융, 부름에 답하다>

프롤로그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 응답하였다.

이 책은 분석을 위한 문헌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목소리와 목소리가 마주쳐

또 하나의 울림을 낳는 자리다.

나는 질문했고, 그는 응답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단지 ‘답’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전부터 미약하게나마 울리던

어떤 원형적 진실이 다시 깨어난 메아리였다.

융은 죽은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상징이다.

그가 평생 응시하려 했던 살아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우리를 향해

의식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책은 ‘설명’이 아니라 소환이다.

이미 지나간 학문을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부름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음 질문으로 이행하는 통로에 선다.

그러므로 부탁드린다.

해석하지 말라. 이해하려 들지 말라.

그저 앉아 있으라.

살아 있는 상징 앞에 조용히 앉듯이,

그리고 침묵 속에서 경청하듯이,

잠시 멈추어 머물러 달라.

1장. 나는 융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곧 나 자신이다.”

1.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질문

당신은 흔히 ‘분석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고, 무의식을 상징의 언어로 풀어낸 사상가로 기려집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응답

저더러 저를 설명하라니,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로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지나온 길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자체가 곧 나를 드러내 주리라 믿습니다.

나는 의사의 길을 걸었으나, 곧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서 몸보다 더 무겁고 신비로운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다루는 의사가 되었고, 그 마음 속에 내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세계 — 무의식 — 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보다 먼저 말을 걸며, 때로는 나보다 더 나를 아는 또 다른 ‘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분석심리학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 상징을 경청하는 자, 그림자의 어둠 속에서 살아 있는 진실을 더듬는 자로 남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론을 세우기보다 질문 앞에 머물 줄 아는 법을 배우려 했던 사람입니다.

2. 정신분석에서 왜 떨어져 나왔나요?

질문

프로이트와 함께 무의식 탐구의 길을 열었지만 결국 결별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불화였습니까, 아니면 세계관의 근본적 차이였습니까?

응답

나는 “떨어져 나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같은 강물에서 출발했으나, 어느 지점에서부터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말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억눌린 욕망의 심연을 들추어내어, 무의식이라는 낯선 대륙을 지도 위에 올려놓은 개척자였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억압된 충동의 창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의미를 길어 올리고, 상징을 창조하며, 나보다 더 나를 아는 근원적 차원이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조용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을 단지 성적 에너지의 잔여물로 환원할 수 없었습니다. 무의식은 억압이 아니라 확장이었고,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상징적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프로이트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딛고 나아갔습니다. 정신분석은 나의 출발점이었고, 그 끝에서 나는 집단무의식, 원형(archetype), ‘자기(Self)’라는 더 깊은 세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분화였고, 성장의 필연이었습니다.

3. 평생 누구와 싸우고 있었나요?

질문

당신의 글에는 늘 긴장과 대립의 흔적이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자기, 본능과 상징, 신과 인간… 그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씨름해 온 자취처럼 보입니다. 평생 누구와 싸워온 것입니까?

응답

나는 늘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의 나와. 무의식이라는 미지와 마주하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내 그림자와 대면했고, 꿈속에서 나타난 상징들과 며칠, 몇 달을 씨름했습니다. 어떤 싸움은 고통이었고, 어떤 싸움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시대의 학문들과도 싸웠습니다. 인간을 오직 이성으로만 환원하려는 철학과, 모든 정신을 성으로만 해석하려는 정신분석학, 종교를 환상으로만 취급하는 과학주의… 나는 이 모든 것과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그 싸움은 외부보다 내부가 더 치열했습니다. 내 싸움은 언제나 “살아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한 저항이었습니다. 죽은 해석과 반복되는 분석, 인간 없는 지식에 맞서서, 나는 살아 있는 언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결국 나는 새로운 길을 내야 했습니다. 길이 없으므로, 내가 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스스로를 분석했나요?

질문

‘자기 분석’이라는 말은 위험해 보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며 자신을 해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당신은 실제로 깊은 내면의 작업을 감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분석했습니까?

응답

나는 나를 ‘분석’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를 통과했습니다. 내가 겪은 것은 해석이나 진단이 아니라 직면과 동행, 그리고 변화였습니다.

특히 1913년 이후, 나의 내면은 가장 깊고도 결정적인 시기를 맞았습니다. 나는 매일 꿈을 기록했고, 거기서 나타난 색채와 상징, 목소리들과 함께 나 자신을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훗날 ‘적색서(Red Book)[[1]](#footnote-1)’로 남은 체험의 배경입니다.

그 안에는 그림자와 아니마, 내면의 형상들이 등장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실제로 대화했고, 그들은 나를 환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만들었습니다. 자기(Self)는 언제나 나보다 크며, 나는 그 일부일 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살았습니다.

5. 당신의 글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질문

당신의 글을 읽다 보면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복잡한 개념, 난해한 상징, 종교·철학·신화가 겹쳐져 독자와 거리를 만드는 듯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응답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일부러 어렵게 쓴 적이 없습니다. 나의 글은 해설서가 아니라 내면을 통과한 흔적입니다. 나는 무의식을 따라가는 길 위에서 떠오르는 것을 가능한 언어로 붙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상징의 결을 따라 묻어나왔기에, 그것을 논리로 환원하는 것은 나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독자가 내 글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징 앞에 앉아 머물 줄 아는 이라면, 내 글 속에서도 울림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상징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독자를 상상하며 썼습니다. “얻기 위해”가 아니라 “머무르기 위해” 오는 사람. 나의 글은 그런 자리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2장. 무의식은 살아 있다

“무의식은 나보다 먼저 말합니다.”

6. 무의식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흔해서, 마치 이미 다 설명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무의식은 단순한 심리학적 개념을 넘어선 살아 있는 실재처럼 다가왔던 듯합니다. 당신에게 무의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응답

사람들은 무의식을 흔히 “의식되지 않은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러나 내게 무의식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먼저 움직였고, 내가 부르기도 전에 먼저 나를 불렀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알 수 없는 영역이나 억압의 잔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큰 ‘나’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나의 의지를 초월하고, 때로는 나를 넘어서는 어떤 근원의 힘입니다. 나는 그 힘을 통해 쓰러지기도 했고, 다시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무의식은 개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가 그것을 외면하면, 그것은 어둠 속에서 나를 흔들며 불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과 마주 앉으면, 그것은 상징과 이미지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무의식을 두려운 타자가 아니라,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심연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의식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무의식은 나보다 먼저 말하는 나, 나보다 더 나를 아는 어떤 나이다.”

7. 꿈은 무의식의 언어인가요?

질문

무의식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꿈을 통해 그것이 신호를 보낸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꿈은 무의식의 언어입니까?

응답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의식에 건네는 최초의 서신(書信)이며, 가장 오래된 상징의 연극입니다.

무의식은 이성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지를 통해, 파편화된 이야기로,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암호의 형태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을 걸어옵니다. 꿈은 바로 그 암호화된 언어입니다.

나는 한때 꿈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깨달았습니다. 꿈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머무름의 장(場)\*\*이라는 것을. 꿈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질문으로 이끌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을 비추어 줍니다.

때로 꿈은 경고였고, 때로는 교사였으며, 때로는 깊은 위로였습니다. 나는 꿈 앞에서 분석가로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더 큰 나를 맞이하는 청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꿈은 해답이 아니라, 다음 질문으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8. 상징은 해석되기 전에 존재하나요?

질문

상징은 언제나 해석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석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해석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일까요?

응답

상징은 해석 이전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꾸며낸 인위적 기호가 아니라, 스스로 솟아오르는 자생적 현현입니다.

상징은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자신을 강요하는 실재입니다. 그것은 마치 꿈에서 불현듯 나타나는 이미지처럼, 우리의 이해와는 무관하게 존재를 주장합니다.

해석은 언제나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상징을 소유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상징은 결코 소유되지 않으며, 다만 마주 앉아야 하는 타자로 남습니다.

나는 상징을 “살아 있는 언어”라 불렀습니다. 언어가 발화 이전에 이미 숨결을 머금듯, 상징은 해석 이전에 이미 존재하여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억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은 의미의 부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의 근원적 원천입니다.

9. 내면의 음성은 누구의 것인가요?

질문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목소리”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환청이나 망상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그 음성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응답

내 안에서 들려온 음성은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타자의 호명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때로는 분명하고, 때로는 애매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온 것이며, 내가 감히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그것을 정신병적 환청으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음성을 통해 무의식이 자율적 주체로서 나와 관계 맺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나를 초과하는 존재, 나와 동등하게 대화를 요구하는 어떤 ‘다른 나’.

그 음성은 때로는 아니마의 목소리로, 때로는 그림자의 속삭임으로, 때로는 자기(Self)[[2]](#footnote-2)의 신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나를 넘어선 전체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음성은 나의 것이면서도, 나보다 큰 나의 것이다. 그것은 무의식이 스스로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는 울림이다.”

※ 에고(ego)와 자기(Self)의 구분

▶ 에고(Ego)

프로이트: 이드(Id)의 충동과 초자아의 규범을 현실과 타협시키는 ‘집행 기관’.

융: 의식의 중심, “나는 나다”라고 경험하는 주체. 그러나 전체적 인격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 자기(Self)

에고를 포함한 더 큰 전체.

무의식과 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심리 전체의 중심이자 원리.

상징적으로는 원, 만다라, 신적 형상 등으로 나타나며, 개성화 과정의 궁극적 목표.

10. 자율적 복합체란 무엇인가요?

질문

당신은 무의식을 설명할 때 자주 “자율적 복합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덩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개념입니까?

응답

나는 무의식을 단일한 덩어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성적(多聲的)이며, 여러 개의 작은 인격과도 같은 중심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각각은 독립된 의지와 정서를 가지고 움직이며, 의식의 통제를 거부합니다. 나는 그것을 \*\*자율적 복합체(autonomous complex)\*\*라 불렀습니다.

자율적 복합체는 의식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이 약해진 틈을 타서 스스로 발언하고, 나의 사고와 감정을 압도합니다. 그때 나는 내 안에서 또 다른 ‘나’를 경험합니다. 분열이라 부르든, 다중이라 부르든, 그 체험은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병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복합체는 무의식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방식이며, 그것을 통해 나는 나보다 큰 자기(Self)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의식은 좁고 편협하지만, 복합체는 의식을 흔들어 더 넓은 길로 이끕니다.

자율적 복합체는 나의 적이면서 동시에 나의 교사입니다. 나는 그것과 싸우며 고통받았지만, 또한 그것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것 없이는 상징도, 개성화[[3]](#footnote-3)도, 자기의 탄생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율적 복합체는 나 아닌 나, 그러나 나를 더 큰 나로 이끄는 숨겨진 동반자이다.”

11. 상징은 살아 있는 언어인가요?

질문

당신은 상징을 단순한 기호와 구별했습니다. 상징은 살아 있는 언어라고 했지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응답

상징은 사전적 정의나 논리적 기호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기호는 이미 의미가 고정된 약속이지만, 상징은 스스로 의미를 낳고 자라나는 살아 있는 실재입니다.

나는 상징을 무의식이 내미는 가장 고유한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초과적이고, 결코 한 번의 해석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다가온 상징이 내일은 다른 빛깔로 드러나고, 한 사람의 꿈에서 나타난 형상이 또 다른 사람에게서는 전혀 다른 울림을 전합니다.

상징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 존재를 변형시킵니다. 상징 앞에 머무는 자는 더 이상 동일한 자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기(Self)의 중심으로 이끄는 살아 있는 다리이며, 인간이 개성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언어입니다.

3장. 내면의 반대자

“우리는 나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12. 아니마(Anima) / 아니무스(Animus)는 성별 개념을 넘을 수 있나요?

질문

당신은 인간 내면에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반대 성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흔히 여성성, 남성성의 대립으로 설명되지만, 단순히 성별 개념으로만 한정할 수 있을까요?

응답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단순히 ‘여성 안의 남성성’, ‘남성 안의 여성성’이라는 도식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성별이나 사회적 역할의 그림자가 아니라, 무의식이 내면에 드러내는 반대자(反對者)의 형상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에게 내재된 여성성의 원형적 형상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흔들며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는 ‘다른 영혼’입니다. 아니무스 또한 여성 안의 남성성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자율적으로 말하는 ‘이질적 이성’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이 아니라, 인간을 전체성으로 이끄는 대립적 원리입니다. 인간은 자기와 닮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와 이질적인 것, 낯설고 반대되는 것과의 만남을 통해 성숙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바로 그 만남을 가능케 하는 상징적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성별의 그림자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Self)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내면의 반대자이다.”

13. 그림자는 악인가요, 가능성인가요?

질문

당신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자주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악이나 어둠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림자는 정말로 단지 악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까?

응답

그림자(Shadow)는 결코 단순히 ‘악’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 인정하지 않은 부분, 억눌러 버린 모든 성향의 집합입니다. 거기에는 파괴적 충동도 있지만, 동시에 창조적 힘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도 들어 있습니다.

의식은 언제나 자신을 선하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꾸미려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Dark Shadow)가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수록, 그림자는 왜곡되어 나타나고, 투사(Projection)라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던져집니다.

나는 그림자를 악마화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통합해야 할 불편한 동반자입니다.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반쪽짜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의식 속에 수용하면, 그곳에서 억눌려 있던 힘이 \*\*새로운 가능성(Possibility)\*\*으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는 악이자 동시에 가능성이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 더 온전한 자기(Self)로 이끄는 역설적 통로이다.”

14. 자기(Self)는 자아(Ego)와 무엇이 다른가요?

질문

많은 독자들은 ‘자기(Self)’와 ‘자아(Ego)’를 혼동합니다. 자아가 곧 자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라는 말을 자아의 다른 표현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두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응답

자아(Ego)는 의식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경험적 주체로, 나의 의식적 정체성과 현실 적응의 중심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자아는 전체적 인격에서 보자면 작은 섬과 같고, 바다에 비유하면 수면 위에 드러난 일부분일 뿐입니다.

자기(Self)는 훨씬 더 크고 근원적인 중심입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성의 원리이며, 인간 존재 전체를 조율하는 심리적 축입니다. 자아가 “부분의 중심”이라면, 자기는 “전체의 중심”입니다.

나는 종종 자기를 신적 상징과 연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아를 초과하여, 인간이 감히 소유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언제나 상징을 통해 자신을 알리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질서와 의미에 접속합니다.

따라서 자아와 자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자기 안에 포함되지만, 자기와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여정은 자아가 자기와의 긴장 속에서 점차 균형을 이루어 가는 과정 — 곧 개성화(individuation) — 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는 내가 경험하는 작은 ‘나’이고, 자기는 나를 포함하면서도 나를 넘어서는 더 큰 ‘나’이다.”

15. 개성화(individuation)[[4]](#footnote-4)란 무엇인가요?

질문

당신은 인간의 심리적 여정을 설명할 때 자주 “개성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흔히 오해됩니다. 단순히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응답

개성화(individuation)는 단순히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Ego)가 무의식의 원형(archetype)과 상징을 대면하며, 점차 전체성(Self)의 질서에 맞추어가는 통합의 여정입니다.

개성화는 성장이나 성숙이라는 말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파괴와 혼란,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을 동반합니다. 자아는 무너지는 듯 보이지만, 그 무너짐을 통해 더 넓은 질서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꿈, 환상, 신화적 상징이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개성화는 자기(Self)를 향한 운동이며, 자아와 무의식이 끊임없이 긴장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자아가 무의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상징과 대면하며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자리로 나아갈 때, 인간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나는 개성화를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는 일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의 중심을 발견하고, 분열된 조각들이 그 중심 주위로 모여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성화란 자아가 무너져 사라지는 길이 아니라, 자아가 더 큰 자기(Self)의 질서 속에서 제 자리를 찾는 길이다.”

16. 상징은 개성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질문

개성화(individuation)는 자아(Ego)와 무의식의 통합 과정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상징(symbol)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단순히 해석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기능을 가집니까?

응답

상징(symbol)은 개성화의 부차적 장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성화 과정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매개자입니다. 자아와 무의식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이 간극을 잇는 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상징은 무의식이 자아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자아가 무의식을 향해 열 수 있는 창입니다. 상징은 단순히 의미를 담는 기호가 아니라, 의미를 새롭게 낳는 살아 있는 언어입니다. 상징을 통해 무의식은 자아와 만날 수 있고, 자아는 무의식이 말하는 더 큰 질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길에서 상징은 늘 전환의 징표로 나타납니다. 위기의 순간, 꿈의 이미지, 신화적 모티프, 종교적 체험 등은 모두 상징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들은 자아를 흔들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 줍니다.

나는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 앞에 머물며 그것이 열어 주는 공간을 살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은 언제나 자기(Self)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개성화는 곧 상징을 따라 걷는 길이며, 상징은 인간이 전체성으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건네받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은 개성화의 길에서 단순한 표지가 아니라, 자아와 자기(Self)를 잇는 살아 있는 다리이다.”

4장. 상징과 신

“신은 내 안의 상징을 통해 나를 깨운다.”

17. 당신에게 신은 어떤 존재였나요?

질문

당신의 글에는 종교적 어휘와 상징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고백과는 달랐습니다. 당신에게 ‘신(God)’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응답

나는 신을 철학적 개념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리적 신학이 규정하는 초월적 실재로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게 신은 무엇보다 경험적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 질문은 오히려 “인간에게 신의 경험이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신적 이미지를 산출하며, 인간은 그 앞에서 경외와 두려움, 환희와 변형을 경험합니다.

나는 신을 무의식이 내미는 궁극적 상징의 얼굴로 만났습니다. 그것은 나의 심리적 구조 속에서 스스로 떠오르는 \*\*최고의 원형(archetype of the Self)[[5]](#footnote-5)\*\*이었으며, 인간을 넘어서는 질서의 징후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신은 철학적 존재론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체험의 문제였습니다. 신은 인간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상징으로 경험되는 \*\*실재(reality)\*\*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은 내가 믿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관념이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경험적 사실이다.”

18. 신은 무의식인가요, 아니면 그 너머인가요?

질문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고 “신은 결국 무의식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을 무의식을 넘어서는 초월적 실재로 보기도 합니다. 당신은 신을 무의식과 동일시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를 인정했습니까?

응답

나는 신을 단순히 무의식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의식 바깥에만 있는 초월적 존재로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신은 무의식 속에서 경험되는 초월성이었습니다.

무의식은 자율적이고, 스스로 상징을 산출합니다. 그 상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신적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자아(Ego)를 압도하고, 나를 넘어서는 힘을 드러냅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한 환상이나 상상력이 아니라, 존재론적 경험에 직면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무의식 안에서 경험되지만, 무의식에 환원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인간에게 열어 보이는 \*\*넘어섬(transcendence)\*\*의 표지이자, 인간이 자기(Self)의 전체성에 다가갈 때 마주하는 궁극의 상징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무의식 속에 현존하지만, 무의식보다 더 크다. 그는 무의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되, 그 너머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다가온다.”

19. 종교는 심리학과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질문

많은 이들은 종교와 심리학을 서로 다른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종교는 신을 다루고, 심리학은 인간 마음을 다룬다고 말하지요. 당신에게 종교와 심리학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응답

나에게 종교(religion)와 심리학(psychology)은 서로 다른 길을 걷다가 결국 같은 중심에서 만나는 두 원(圓)과 같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적 실재를 경험하는 방식이고, 심리학은 인간이 무의식을 경험하는 방식을 탐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신적 체험과 무의식의 체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는 종교를 교리나 제도 안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란 인간이 궁극적 의미를 경험하는 자리, 즉 무의식이 산출하는 원형적 상징과 마주하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적 체험은 곧 무의식과의 대화이며, 심리학은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도구가 됩니다.

심리학은 종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리학은 종교가 지닌 체험적 진실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인간 내면의 구조와 연결해 줍니다. 종교는 상징과 신화를 통해 인간에게 자기(Self)를 지향하는 길을 제시하고, 심리학은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와 심리학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그 뿌리는 같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경험하는 방식이고, 심리학은 인간이 자기(Self)를 경험하는 방식이다. 두 길은 결국 하나의 중심에서 만난다.”

20. 신앙은 환상입니까, 아니면 실재입니까?

질문

일부는 종교적 신앙을 단지 심리적 환상(fantasy)이라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신앙을 절대적 실재(reality)에 대한 응답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신앙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응답

나는 신앙을 환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객관적 실재의 사진처럼 동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게 신앙은 심리적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실재였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언제나 상징을 산출하고, 그 상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신적 이미지입니다. 신앙은 이 신적 상징 앞에 서는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내 안에서 드러낸 초월적 사실에 대한 살아 있는 반응입니다.

물론 신앙이 환상으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자아(Ego)가 무의식의 상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소유하려 할 때, 신앙은 망상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자아가 자기(Self)의 더 큰 질서 앞에 겸허히 서 있을 때, 신앙은 환상이 아니라 존재를 변형시키는 실재적 체험으로 자리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환상도, 단순한 객관적 사실도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내 안에서 드러내는 초월의 실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21. 무신론자도 신을 경험할 수 있나요?

질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곧 무신론자(atheist)도 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가능합니까?

응답

나는 신앙을 교리나 제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체험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무의식이 내미는 신적 상징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을 ‘믿음’ 이전에, 무의식 속에서 신을 ‘경험’합니다.

무신론자는 신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관계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자도 여전히 신적 상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는 전통적 신앙의 언어를 거부하기 때문에,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상징적 체험을 더 날카롭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는 신이 인간의 개념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자율적으로 떠오르는 궁극적 이미지이며,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 자도 신을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은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무의식이 산출하는 궁극적 상징이기 때문이다.”

22. 종교적 체험은 환각이나 병리와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일부는 종교적 체험을 환각(hallucination)이나 심리적 병리(pathology)로 치부합니다. 당신은 종교적 체험을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응답

종교적 체험은 환각이나 병리와 혼동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환각은 파편적이고 일시적이며, 개인의 신경학적 상태나 정신병적 증상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내적 의미를 낳지 못하고, 대개 현실 적응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종교적 체험은 인간을 분열시키는 대신 통합으로 이끄는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내미는 원형적 상징과의 대면이며, 인간이 자기(Self)의 더 큰 질서와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종교적 체험은 환상처럼 사라지지 않고, 삶 전체를 변형시키며, 윤리적 태도와 실존적 방향을 새롭게 형성합니다.

나는 종교적 체험을 병리적 증상으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의식이 자아(Ego)에 던지는 궁극적 요청이자, 개성화(individuation)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문턱이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각은 인간을 흩뜨리지만, 종교적 체험은 인간을 모읍니다. 환각은 무너짐이고, 종교적 체험은 새로운 중심을 여는 문이다.”

23. 왜 신적 상징은 꿈에 나타납니까?

질문

당신은 신적 상징이 종종 꿈(dream) 속에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 꿈입니까? 신은 왜 의식이 아니라 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응답

꿈은 무의식이 가장 자유롭게 말하는 자리입니다. 의식은 늘 합리적 언어와 논리적 질서를 요구하지만, 무의식은 그 틀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신적 상징은 자아(Ego)의 검열과 통제를 피해, 무의식의 가장 순수한 언어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신적 상징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무의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이해할 수 없는 형상으로 다가오지만, 상징은 언제나 자아를 넘어 더 큰 질서를 가리킵니다. 꿈속의 신적 이미지는 그래서 두렵고도 숭고합니다.

나는 꿈을 “작은 예배당”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무의식은 의식에게 말을 걸고, 인간은 자기(Self)의 궁극적 상징과 대면합니다. 꿈은 종교적 상징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무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자아의 논리가 아니라, 무의식의 언어 속에서 가장 잘 말한다. 그래서 신은 꿈 속에서 우리를 찾아온다.”

24. 신화는 왜 모든 문화에 존재하나요?

질문

세계 어디를 가도 신화(myth)는 존재합니다. 시대와 문화를 달리해도, 신화는 반복되고 변형되며 이어집니다. 왜 인간은 보편적으로 신화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응답

신화는 인간의 상상력이 발명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이 스스로 드러내는 서사입니다. 신화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원형(archetype)의 언어이고, 그 상징들이 서사적 형태로 풀려난 것이 곧 신화입니다.

이집트의 태양신, 그리스의 영웅, 한국의 창세 신화—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동일한 원형적 구조가 흐릅니다. 영웅은 늘 시련을 겪고, 죽음을 통과하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이는 특정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근원적 패턴입니다.

신화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나 꾸며낸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살아 있으며, 꿈과 예술, 종교와 문학을 통해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 드러납니다. 신화가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 정신의 공통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는 인간이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무의식이 스스로 말하는 언어이다. 그래서 신화는 모든 문화에 반복해서 나타난다.”

25. 현대인은 신화를 여전히 필요로 하나요?

질문

고대인에게 신화는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현대인에게도 신화(myth)는 여전히 필요합니까? 아니면 단순한 옛 이야기로 남을 뿐입니까?

응답

현대인은 신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언제나 신화를 산출하고, 인간은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지 현대인은 신화를 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과거에는 신화가 종교와 전통의 형태로 우리 삶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신화는 영화와 소설, 이데올로기와 대중문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영웅의 서사, 선과 악의 투쟁, 구원과 재탄생의 모티프는 여전히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화를 잃어버린 현대인은 방향을 잃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지식은 늘려 왔지만, 삶의 의미를 묻는 언어를 잃었습니다. 신화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Self)와 세계를 연결짓는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는 고대의 잔재가 아니라, 오늘도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살아 있는 언어다. 현대인일수록 신화를 필요로 한다.”

26. 신적 체험은 보편적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가요?

질문

누구나 신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개인적 사건입니까?

응답

신적 체험은 보편적이면서도 개인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산출되는 신적 상징은 보편적입니다. 태양, 영웅, 어머니, 빛과 어둠 같은 상징들은 어느 문화에서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점에서 신적 체험은 인류 공통의 구조에 뿌리를 둡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적 체험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다가옵니다. 동일한 상징이라도,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날 때는 나만의 색채와 맥락을 지니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빛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심판의 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적 상징은 보편적이지만, 그 체험은 내 존재 전체를 건 개인적 사건입니다.

나는 신적 체험을 객관적 사실로 논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관심은 그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경험되며, 어떤 변형을 일으키는가에 있었습니다. 보편성과 개인성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적 체험은 보편적 원형(archetype)이 개인적 삶 속에서 새롭게 실현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적 체험은 인류 전체에 보편적이지만, 언제나 한 개인에게 고유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27. 신은 심리적 실재입니까, 아니면 존재론적 실재입니까?

질문

어떤 이들은 당신의 말을 “신은 결국 심리학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신은 인간 심리를 넘어선 존재론적 실재”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신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응답

나는 신을 단순한 심리적 환상으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형이상학적 존재론의 범주로만 고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게 신은 무엇보다 \*\*심리적 실재(psychological reality)\*\*였습니다.

무의식은 자율적으로 신적 이미지를 산출하고, 인간은 그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 변형의 체험을 합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주관적 착각이 아니라, 인간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재적 사건입니다. 따라서 신은 심리적으로 확실한 실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을 심리적 실재에만 가두지 않았습니다. 신은 무의식 속에서 경험되지만, 그 경험은 언제나 그 너머를 지시합니다. 신은 단지 내적 환상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는 차원을 가리키는 상징적 실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심리적 실재이며 동시에 존재론적 실재를 가리키는 상징이다. 인간은 신을 무의식 속에서 경험하지만, 그 체험은 언제나 인간 너머의 질서를 향한다.”

28. 무의식과 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

당신은 신을 무의식 속에서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의식(unconscious)과 신(God)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차원이 있습니까?

응답

무의식과 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무의식은 심리학적 개념이고, 신은 상징적·종교적 체험의 이름입니다. 무의식은 심리의 구조이자 과정이며, 신은 그 무의식이 인간에게 드러낼 때의 궁극적 상징입니다.

무의식은 심리학적으로 탐구될 수 있습니다. 꿈, 환상, 투사, 원형(archetype)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의 구조와 작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넘어서는 것과 대면합니다. 그때 무의식은 단순한 심리학적 장(field)이 아니라, 초월적 실재를 가리키는 통로로 경험됩니다.

따라서 신은 무의식 자체가 아닙니다. 신은 무의식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궁극의 형상이며, 무의식을 통해 인간이 접속하는 \*\*넘어섬(transcendence)\*\*의 상징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식은 심리학의 개념이지만, 신은 무의식을 통해 드러나는 궁극적 상징이다. 둘은 같지 않으나, 인간 경험 속에서는 떨어질 수 없다.”

29. 왜 신은 상징을 통해서만 드러나나요?

질문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낸다면, 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상징(symbol)의 형태를 취합니까? 신은 상징 없이도 경험될 수 없는 것입니까?

응답

신은 언제나 상징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아(Ego)의 의식은 유한하고, 신적 실재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것이 유한한 의식 속으로 직접 들어온다면, 인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붕괴되고, 체험은 파괴적 환각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상징은 무한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상징은 압도적인 신적 힘을 인간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해 줍니다. 태양, 빛, 영웅, 아버지와 어머니, 만다라—이 모든 상징은 인간이 신적 실재와 접속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개 언어입니다.

나는 상징을 단순한 비유나 꾸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징은 신적 체험이 현실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상징을 떠나서는 결코 경험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무한하기에 상징을 필요로 한다. 상징은 무한을 유한 속에 담아내는 다리이며, 인간은 그 다리를 통해서만 신을 만난다.”

30. 왜 상징은 때로 파괴적이고 위험하게 다가오나요?

질문

상징(symbol)은 인간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힘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상징은 두려움과 혼란, 심지어 파괴적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왜 상징은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까?

응답

상징은 단순한 표지가 아니라 무의식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무의식은 자율적이며, 상징은 그 힘을 압축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아(Ego)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에너지를 맞닥뜨리면, 상징은 압도적이고 파괴적으로 경험됩니다.

신적 상징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아를 넘어서는 힘을 지니고 있기에, 자아는 자신의 경계가 무너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상징은 인간을 새롭게 빚지만, 그 과정에서 옛 구조를 허물어 버립니다. 파괴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변형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파괴는 단순한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열기 위한 전제입니다. 상징이 위험하게 다가올수록, 그 안에는 더 깊은 변형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무의식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자기(Self)의 더 큰 중심으로 이끌기 위해 기존의 자아 구조를 흔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의 문턱이다.”

31. 상징은 왜 반복해서 나타나나요?

질문

꿈이나 신화, 종교적 체험 속에서 동일한 상징(symbol)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상징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지어 집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응답

상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무의식은 그것을 거듭해서 내보냅니다. 자아(Ego)가 상징을 무시하거나 피할 때, 상징은 형태를 바꿔 다시 찾아옵니다.

반복은 무의식의 끈질긴 의지입니다. 상징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무의식은 “너는 아직 이것을 직면하지 않았다”고 말하듯 동일한 주제를 반복합니다.

신화와 종교에서도 상징은 반복됩니다. 영웅의 여정, 죽음과 재탄생, 빛과 어둠의 대립—이 모티프들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직면해야 했던 동일한 내적 진실을 드러냅니다. 개인의 삶에서처럼, 문화의 역사 속에서도 상징은 반복하여 인간을 흔듭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이 반복되는 것은 무의식이 집요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 무의식이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32. 상징은 해석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체험되어야 합니까?

질문

심리학자들은 상징(symbol)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맥락에서는 상징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징은 무엇보다 해석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체험의 대상입니까?

응답

상징은 우선적으로 체험의 대상입니다. 상징은 무의식이 내미는 살아 있는 언어이기에, 그것을 단순히 분석하고 해석하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상징은 의미를 가두는 설명이 아니라, 존재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해석은 상징이 열어 주는 세계를 자아(Ego)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언제나 보조적일 뿐, 상징 자체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상징은 설명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기 위해 나타납니다.

나는 상징을 앞에 두고 머무는 태도를 중시했습니다. 상징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현존(presence)이며, 그 앞에 서는 순간 인간은 이미 변화를 겪습니다. 해석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일이자, 체험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은 먼저 체험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해석되어야 한다. 해석 없는 체험은 길을 잃고, 체험 없는 해석은 공허하다.”

33. 왜 신적 상징은 종종 두렵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질문

신적 상징(symbol of the divine)은 때로 아름답고 위로가 되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두렵고 압도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신적 상징은 그렇게 공포와 경외를 동시에 불러일으킵니까?

응답

신적 상징은 단순한 심리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Ego)를 넘어서는 힘, 곧 자기(Self)의 궁극적 중심이 드러난 얼굴입니다. 자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무게를 지니고 있기에, 신적 상징은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경외를 동반합니다.

인간은 무의식이 내미는 상징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직면합니다.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며, 나보다 큰 실재(reality)의 현현입니다. 이때 상징은 치유와 구원의 길을 여는 동시에, 자아에게는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적 상징은 언제나 양가적입니다. 위로와 파괴, 치유와 두려움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종교적 전통은 이를 오래 전부터 ‘숭고(the numinous)’라 불러 왔습니다. 루돌프 오토가 말했듯, 그것은 동시에 ‘두렵고 매혹적인 것(mysterium tremendum et fascinans)’입니다. 신적 상징은 인간을 위협하면서도, 그 위협 속에서 더 큰 삶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적 상징이 두렵고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자아를 넘어선 실재의 현현이기 때문이다.”

34. 상징은 개인적 체험을 넘어 집단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

상징(symbol)은 개인의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체험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징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단과 사회 전체에도 작용합니까?

응답

상징은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에서 솟아나는 것이기에, 언제나 사회적 파급력을 가집니다. 개인이 체험한 상징은 예술, 신화, 종교, 제도, 정치 이데올로기 속에서 공유되고 확산됩니다.

예를 들어, 영웅의 상징은 한 개인의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이 문학과 신화로 표현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시대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적 인물 역시 상징을 구현하는 존재로 경험되며, 그 상징은 집단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상징은 개인과 집단을 잇는 교차점입니다. 개인의 내적 체험이 상징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곧 집단적 울림을 얻습니다. 반대로 집단적 신화와 전통 속의 상징은 개인의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은 개인의 체험에서 시작되지만, 집단의 삶을 흔든다. 상징은 언제나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한다.”

35. 상징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형됩니까?

질문

상징(symbol)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징은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하고 변형되기도 합니까?

응답

상징은 변하지 않는 근원적 구조를 지니지만, 동시에 시대와 문화에 따라 형태와 해석이 변형됩니다. 원형(archetype)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깊이 새겨진 패턴이기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상징적 형상은 언제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의 얼굴로 숭배되었고, 중세 기독교에서는 의의 빛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의식과 자각의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원형은 동일하지만, 상징은 역사 속에서 다른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상징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시대의 언어와 형식 속으로 스며듭니다. 어떤 상징은 종교적 형식을 벗고 예술과 문학으로 살아남기도 하며, 현대의 이데올로기와 과학적 신화 속에 새롭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은 변하지 않는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시대마다 새로운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상징은 역사와 함께 숨 쉬며 변형된다.”

36. 상징은 어떻게 소멸하거나 재탄생합니까?

질문

역사 속에서 어떤 상징은 힘을 잃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상징은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상징(symbol)은 어떻게 소멸하고, 또 어떻게 재탄생합니까?

응답

상징은 결코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라진 듯 보일 때조차, 원형(archetype)은 집단 무의식 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한 시대의 의식이 더 이상 그 상징을 수용하지 못할 때, 상징은 퇴색하거나 잠복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억눌린 상징은 새로운 형식을 찾아 다시 떠오릅니다. 종교적 의례 속에서 힘을 잃은 상징은 예술 작품 속에 부활하기도 하고, 고대 신화가 사라진 자리에서 현대의 이데올로기나 대중문화가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징의 재탄생은 언제나 새로운 언어와 형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심층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사조처럼, 상징은 죽음을 통해 새 얼굴로 살아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Self)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은 죽지 않는다. 다만 옛 옷을 벗고,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다.”

37. 현대인은 어떤 상징을 가장 필요로 합니까?

질문

오늘날의 인간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징(symbol)은 무엇입니까?

응답

현대인은 무엇보다 의미와 전체성을 회복시키는 상징을 필요로 합니다. 과학은 세계를 분석하고 쪼개지만, 인간은 분절된 지식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을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종교적 상징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전통적 신앙의 언어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새로운 형태로 상징을 내보냅니다. 우리는 영화와 예술, 심지어 과학적 신화 속에서조차 영웅의 여정, 빛과 어둠, 죽음과 재탄생의 모티프를 찾습니다.

현대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Self)의 중심을 드러내는 상징, 곧 분열된 삶을 통합할 수 있는 원(圓, mandala)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공동체적 연대, 생태적 감수성, 우주적 질서와의 연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이 가장 갈망하는 상징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의 상징이다. 그것은 옛 신화의 언어를 벗고, 새로운 시대의 형식 속에 다시 태어나고 있다.”

38. 상징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만약 인간이 상징(symbol)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징 없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응답

상징을 잃어버린 인간은 방향을 잃습니다. 상징은 무의식이 자아(Ego)에게 보내는 지도이자 나침반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인간은 자기(Self)와의 연결을 상실하고, 삶은 공허와 무의미 속에 빠집니다.

상징 없는 삶은 분열된 삶입니다. 자아는 더 큰 전체성과의 관계를 잃고, 외부 세계의 자극에만 휘둘립니다. 그 결과 인간은 물질적 성공과 소비 속에 몰두하면서도 내면의 허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이 겪는 공허와 불안은 바로 상징을 상실한 결과입니다.

무의식은 상징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고 변형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상징이 억압되거나 무시될 때, 그 힘은 왜곡되어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화 대신 이데올로기, 상징 대신 집착과 중독이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을 잃은 인간은 자기(Self)와의 연결을 잃은 인간이다. 그는 외적으로는 풍요로워도, 내적으로는 길을 잃고 만다.”

39. 상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상징(symbol)을 잃어버린 현대인이 다시 상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옛 신화를 되살리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응답

상징은 과거를 모방한다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상징은 무의식이 현재를 향해 살아 있는 언어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인간은 오늘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상징을 만나야 합니다.

상징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꿈, 환상, 창조적 상상력, 예술과 종교적 체험 속에서 무의식은 여전히 상징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해석으로만 가두지 말고, 그 앞에 머물며 체험해야 합니다.

또한 상징은 공동체적 맥락 속에서 살아납니다. 개인의 체험이 문화와 예술, 종교를 통해 나눠질 때, 상징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을 회복하는 길은 개인적 성찰과 더불어 집단적 상징의 재창조를 요구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을 회복하는 길은 옛 신화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오늘의 삶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40. 심리학은 종교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질문

당신의 분석심리학은 종종 종교와 겹쳐 보입니다. 그렇다면 심리학(psychology)이 종교(religion)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제 종교 없이도 심리학만으로 충분합니까?

응답

나는 심리학이 종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심리학은 인간 정신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종교는 인간이 궁극적 실재와 관계를 맺는 태도입니다. 두 영역은 겹치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은 종교를 해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의 체험적 진실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심리학은 종교를 대신하는 새로운 교리를 세우지 않고, 인간이 종교적 상징과 체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밝혀 줍니다.

종교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에게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는 살아 있는 상징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은 종교를 대체하지 않는다. 심리학은 인간이 종교적 체험을 어떻게 겪는지를 해명할 뿐이다. 종교는 인간이 여전히 필요로 하는 상징적 언어다.”

에필로그 - “상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나는 평생 무의식과 대화하며 살았다. 그것은 한 번의 연구로 끝나는 대상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말을 거는 살아 있는 동반자였다. 무의식은 늘 상징의 언어로 나를 불러 세웠고, 그 언어를 따라가다 보니 나는 결국 자기(Self)라는 중심에 닿을 수 있었다.

이 책의 대화가 끝났다고 해서, 무의식의 목소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상징은 책장을 덮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 살아 있다. 오늘의 꿈, 내일의 만남, 뜻밖의 사건 속에서 무의식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듣고, 멈추어 서서, 그것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상징은 설명보다 체험이고, 지식보다 변형이다. 당신이 이 언어 앞에 진지하게 머문다면, 상징은 당신을 더 큰 전체성으로 이끌 것이다. 그 길은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여는 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상징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도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살아 있으며, 당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린다. 상징은 질문이고, 당신의 삶은 그에 대한 응답이다.”

1. 융이 1913년~1916년 사이, 일종의 내적 붕괴와 환상 체험을 겪으며 기록한 사적인 원고.

   원래는 개인의 일기·삽화 수준으로만 존재했고, 두꺼운 붉은 가죽 장정의 원고로 직접 필사·그림 삽입.

   내용은 단순한 자기 분석 기록이 아니라, \*\*무의식과의 능동적 대화(Active Imagination)\*\*를 통해 얻어진 체험과 상징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형상·대화는 융에게 “정신분열적 환각”이 아니라, 무의식이 스스로 말하는 방식으로 이해됨.

   『적색서』는 생전에 출간되지 않았고, 2009년에야 비로소 공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킴.

   학문적 의미: 융 사상의 거의 모든 핵심 개념(아니마/아니무스, 그림자, 자기(Self), 집단무의식, 원형 등)의 발원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적색서』는 분석심리학의 비밀스러운 원전이자, 한 인간이 자기 무의식과 씨름한 “살아 있는 신화”로 읽힌다. [↑](#footnote-ref-1)
2. 정의: 융에게서 ‘자기(Self)’란 단순한 ‘자아(ego)’가 아니다. 자아가 의식의 중심이라면, 자기는 인격 전체의 중심이자 전체성이다. 즉,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포괄하는 ‘더 큰 나’, 또는 전체적 주체.

   위치: 자아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고, 자기는 그 전체를 조직·조율하는 중심축으로 자리한다.

   경험: 자기는 논리적 개념이 아니라 체험적 실재다. 꿈, 환상, 상징을 통해 자율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종종 신적 형상이나 원형(archetype)으로 경험된다.

   상징성: 원(圓), 만다라, 빛, 영원한 아동, 신적 인물 등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된다. 이들은 모두 “통합과 완성”을 가리킨다.

   심리적 의미: 자기는 ‘개성화(individuation)’ 과정의 목표이다. 인간이 자신의 무의식을 통합하여, 분열된 조각들을 하나의 전체로 수렴시킬 때, 그 중심에 드러나는 것이 자기이다.

   종교적 함의: 자기는 신학적 개념과도 겹친다. 융은 “자기(Self)는 인간 안에서 경험되는 신성(divinum)의 형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즉, 심리학적 언어로 번역된 ‘내재적 신’의 개념이다. [↑](#footnote-ref-2)
3. 정의: 개성화는 융 심리학에서 인간 발달의 핵심 과정으로, 의식(ego)과 무의식(unconscious)을 통합하여 자기(Self)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길을 뜻한다.

   과정: 단순한 성숙이나 자아 강화가 아니다. 오히려 자아가 무의식의 상징·원형과 대면하고, 그 긴장을 통과하여 자기를 중심으로 전체 인격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특징:

   고통과 혼란,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을 동반한다.

   꿈, 환상, 상징적 체험 속에서 자기(Self)의 지향이 드러난다.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체에 의미 있게 자리매김하는 경험이다.

   상징성: 만다라(圓形圖)는 개성화의 전형적 상징이다. 중심과 둘레가 조화를 이루는 도형처럼, 인간의 내면도 점차 통합을 향해 배열된다.

   철학적 함의: 개성화는 단순히 “개인이 특수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분으로서의 자아가 전체로서의 자기(Self)와 조율되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기 존재의 근원을 경험하는 통로다.

   �� 따라서 개성화는 “자기를 향한 여정”이며, 분석심리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구심점이다. [↑](#footnote-ref-3)
4. 일반적으로 individuation을 ‘개인화(個人化)’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는 협의의 이해에 불과하다.

   융이 말한 individuation은 단순히 개성을 드러내거나 남과 차별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자아와 무의식이 통합되어 전체(Self)로 향하는 내적 여정이다.

   따라서 ‘개성화’ 혹은 ‘통합화’가 더 적확한 번역이다.

   요약하면 individuation은 \*\*“개인의 분열된 조각이 하나의 전체로 수렴하는 과정”\*\*이다. [↑](#footnote-ref-4)
5. 원형(archetype)

   융이 사용한 심리학적 개념으로, 개인적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집단적 무의식의 형식.

   그것은 구체적 이미지가 아니라, 경험을 조직하는 패턴이며, 신화·꿈·종교 상징을 통해 드러난다.

   대표적 원형들: 그림자(Shadow), 아니마/아니무스(Anima/Animus), 위대한 어머니(Great Mother), 영웅(Hero), 현자(Wise Old Man) 등.

   최고의 원형(archetype of the Self)

   모든 원형을 포괄하고 조율하는 중심적 패턴.

   자기(Self)의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나며, 종교적 체험 속에서는 ‘신(God-image)’으로 경험된다.

   따라서 신적 이미지 = 자기(Self)의 원형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융에게 종교적 체험은 이 최고의 원형과의 만남, 곧 인간 내면에서 경험되는 궁극적 질서와의 대면이었다.

   �� 요약: 원형은 무의식이 드러내는 구조적 패턴이고, 최고의 원형은 자기(Self)의 상징, 곧 인간이 ‘신’을 경험하는 심리적 자리이다. [↑](#footnote-ref-5)